
논에서 만난 식물이야기

신 정 섭 (한국생태문화연구소 소장)

“얼마나 한생원은 일찌기 애비를 여의고 늙은 손으로 여지껏 길러 온 외톨 손자놈 용길이가 징용에 뽑히지 말게 하려고 구장과 면의 노무계 직원과 부락담당 직원에게 굵은 허리를 굽실거리며 건사를 물고 하였던고. 굵은 끼니를 더 굵어가면서 그들에게 쌀을 보내어 주기, 그들이 마을에 일 찢하면 부랴부랴 청해다 씨암탉 잡고 술대접하기, 한참 농사일이 몰릴 때 라도 내 농사는 늦어도 용길이를 시켜 그들의 논에 모 심고 김 매어 주고 하기, 이 노릇에 흰머리가 도로 검어질 지경이요 빗(債)은 고폐가 넘도록 지고하였다(채만식, 논이야기).”

쌀로 지은 밥을 먹고 사는 우리에게 논은 곡식이 있는 생명의 창고이고, 수 많은 삶의 애환과 고된 노동의 뒷애기가 녹아 있는 문화의 보고이다. 빈곤한 살림살이에 먹을 것 없는 거울을 나면서도 못자리에 쓸 종자벼는 절대 손대지 않았던 우리의 선대들은 논에서 일하고 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큼 논을 귀하게 생각했다. 모든 절기는 논농사에 맞추어 구분되었고, 벼농사 틈틈이 농사일의 피곤을 푸는 놀이를 즐기었으며, 벼가 익어 세상이 온통 금빛으로 변한 다음에는 넉넉한 마음으로 잔치를 베푸는 생활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던 것이다. 세상이 바뀌어 사람

들은 밥 대신 빵을 많이 먹고 그로 인해 쌀 소비는 점점 줄어들어 눈만 뜨면 올라가는 물가 속에서도 쌀값은 제대로 오르지 않고 바닥을 기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쌀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자 벼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논을 메워 비닐하우스를 짓고 값 나가는 딸기나 수박, 참외 같은 과일이나 부추, 고추, 참나물 같은 고소득 작물을 심고 있다. 봄이면 개구리 소리 가득 들리던 들에 소득을 높이기 위해 켜 놓은 불빛만 빛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말 이대로 논이 전성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추억이 되어 버리는 것일까?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쌀을 대신하고 있는 밀가루는 우리가 자급하고 있을까? 1984년 정부가 밀 수매를 중단하면서 밀의 생산량이 급감하여 소비량의 전량이라고 봐도 좋을 거의 대부분을 지금까지 수입한 밀에 의지해야 했다. 1989년 경상남도 고성군 두호마을에 우리밀 심은 것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밀을 먹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밀의 자급율은 채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수매에 의지해 겨우 명맥을 유지해 오던 보리농사도 2012년부터 정부에서 보리수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우리가 생산하는 곡식의 양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쌀이 남아 돈다는 이야기는 밀가루 수입을 전제로 한 것일 뿐이다. 만일 밀가루를 수입하지 못한다면 우린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는 이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논을 지켜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논은 살아있는 습지 생태계중 한 곳이라는 것이다. 논이 있는 곳에는 물이 있고 생명을 잉태하는 물은 논에서도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환경을 마련해 준다. 한동안 과도한 비료와 농약을 사용해 논에서 사는 생물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지만 최근 들어 유기농과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면서 논이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한동안 눈에 띄지 않던 긴꼬리투구새우가 심심찮게 보이는 것도 다 논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탄소 저감과 기온 저감 효과까지 탁월한 논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고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논습지를 보전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 더욱이 생산자로서 논 습지 생태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벼와 함께 살아가는 식물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생태환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잡초로만 인식되어 뽑아버리기 바빴던 논에서 살아가는 식



《지평선이 보이는 평야인 김제평야의 봄날풍경 모를 내지 않은 논에는 이삭이 팬 보리가 부는 저녁바람에 고개를 숙이며 익기를 기다리고 있다.》



《태안으로 가는 중간의 논에서 만난 보리. 허수아비를 이대에 비닐을 묶어 세워 놓은 것이 특이하다.》

물들이 버와 어떻게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논 생태계에 적응해 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태안의 무논에서 만난 매화마름

논 습지의 중요한 구성원중 하나인 식물을 살펴보기 위해 바다와 가까운 서해안의 태안으로 가려고 이른 아침 길을 나섰다. 태안은 바다를 메워 만든 넓은 간척지 논으로 유명한 곳이다. 간척한 논은 토양 중에 많은 염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겨울철에도 논에 물을 담아 놓는 곳이 많다. 겨울철에도 물이 담겨 사철 물이 차 있는 논을 무논이라고 한다. 이 무논에는 사람이 심는 벼가 자라는 시기를 피해가며 종을 유지해 가는 식물이 있다. 오늘은 그 식물을 찾기 위해 태안의 무논을 찾아 가는 길이다. 우리나라 어디에서고 중부지방에 있는 태안으로 가는 길은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근교도 아니다. 이곳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서산에 도착해서도 국도를 타고 30분 이상을 들어가야 한다. 봄 태안을 들어가는 길가에 있는 보리밭은 보리의 이삭이 패어 멀리서 보면 마치 푸른 초원을 보는 것 같다.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보리이삭의 움직임은 풀밭 사이로 작은 짐승들이 물려다니는 것만 같다. 한참을 가다 태안을 삭선리의 아직 모를 심지 않은 논에서 물을 댄 후 씨래질을 하는 농부의 모습이 보였다. 이전에야 논을 갈아엎어 물이 땅에 잘 스며들도록 하는 작업인 씨래질을 소의 등에 쟁기를 달아 작은 논 하나도 한나절을 걸려 하였지만 지금은 트랙터에 로터리를 달아 같은 넓이의 논을 한 두 시간도 되지 않아 마칠 수 있게 되었다. 물이 차 있는 논가에 앉아 작업을 보고 있노라니 개구리 한 마리가 논둑에서 움직인다. 얼핏 보니 마치 금개구리 같아 자세히 살펴보니 금개구리 같기도 하고 참개구리 같기도 하다. 구분이 어려워 사진을 찍어두었다가 나중에 양서·파충류를 전공하시는 분께 물어보니 금개구리를 닮았지만 머리에 구분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참개구리라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다. 금개구리는 등에 두 줄의 금줄이 선명해 참개구리와는 구별이 되는 데 암수 모두 울음주머니가 없으며, 서해안을 따라 주로 분포하는 요즘은

보기 쉽지 않은 양서류의 동물로 지정한 멸종위기 2급의 동물이기도 하다. 금개구리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 신두리 사구의 두웅습지에서 금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부터 여서 신두리에서 멀지 않은 이곳에서 금개구리를 보았다면 반갑고도 중요한 일이어서 잠시 즐거워했는데 아쉽기만 하다.

논에서 개구리를 많이 볼 수 있는 이즈음 논둑은 식물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의 논둑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들은 무엇이 있을까? 논과 논을 가름해주는 논둑은 그리 넓지 않다. 또 봄이 되면서 허물어진 곳을 다시 쌓고 논흙을 끌어 올려 둑 주변을 다져준 논둑에는 사람손을 타서 그리 많은 식물들이 자라지는 못한다. 하지만 논과 논 사이가 아닌 논과 길 사이에 있는 논둑은 제법 크고 자주 손을 보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식물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 이곳 태안의 논둑에는 포자채와 잎을 따로 내서 봄날 그 모습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쇠뜨기를 비롯해 목은 밭이나 길가에 흔하게 들어오는 개망초도 10cm 정도 줄기를 내고 파릇한 잎을 달고 서 있다. 논을 갈아엎거나 물을 채우기 전에 논바닥에서 주인 노릇을 했을 뚝새풀도 이곳저곳에서 삐죽이 솟아올라 주황색꽃가루가 달린 꽃을 피우고 있다. 어떤 녀석은 벌써 씨를 달고 있는 녀석들도 눈에 띈다. 봄이면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흙만 보이면 명함을 내미는 보리쟁이도 명함을 내밀고 있는데 작고 노란 꽃이 앙증맞기까지 하다. 논둑 위에서 고개를 내밀고 저마다 봄을 시샘하듯 자라고 있는 식물들 사이로 자잘한 꽃을 피운 키 작고 연약해 보이는 식물이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꽃마리이다. 꽃마리는 키가 작아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개체수를 살펴보는 다른 식물들 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약해 보여도 약하지 않은게 이 식물인데, 개미자리나 벼룩나물 같은 식물들이 꽃마리와 같은 유형의 식물이라고 볼 수 있다. 봄날 논둑에 화사함을 더해주는 식물이 있으니 바로 봄맞이꽃이다. 봄맞이꽃은 마치 사슴처럼 가느다란 가느다란 목을 길게 뽑고 그 위에 눈부시게 하얀 꽃을 피우는데 이들이 몰려 피어 있으면 한낮에도 밝은 전구를 켜 놓은 듯 주변이 온통 화사하게 변한다. 저쪽 논둑에는 벌써 꽃이 지고 씨를 내 햇살을 온통 몸으로 안고 있는 서양민들레가 자리잡

고 있다. 평소 그냥 지나쳤던 논둑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이 북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종합시장 같은 곳이다. 논둑에 사는 식물들은 대부분 논이 가까이 있지만 수생식물은 아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수변식물들도 간혹 나타나기는 하지만 논둑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웬만한 건조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식물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걸 보면 논둑이 물이 들어 차 있는 논과는 달리 약간은 건조한 환경임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논둑은 논가에 있지만 수분이 쉽게 달아 날 수 있는 구조적인 모습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경운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농로는 사람들이 겨우 걸어 다닐 수 있는 좁은 폭의 논둑과는 차이가 있는데, 밟거나 누르는 힘인 압압의 영향을 논둑보다는 농로가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들어오는 식물도 조금 다르다. 이런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을 흔히 답압식물이라고 하는데, 논둑에서 대표적으로 만날 수 있는 답압식물로는 질경이가 있다. 흔히 수레바퀴가 밟고 지나가도 잘 살아 남는다는 뜻으로 지어진 한자명인 차전자(車前子)는 질경이의 씨를 이르는 이름으로 이노작용이 탁월하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 기능이 우수해 이전부터 한약으로 널리 쓰여왔다. 질경이씨의 섬유질은 대장의 기능을 활성화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질경이와 함께 토끼풀도 이런 농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토끼풀 역시 웬만한 답압은 모두 견디어 내는 강한 내성을 지닌 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논둑의 식물들을 뒤로 하고 계속 길을 가다 태안군 이원면에 이르러 물이 얇게 채워진 논 위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식물이 자라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오늘 여행의 목표가 되었던 식물이다. 무논에 모심기를 하기 전까지 이른봄부터 부지런히 자라 4월말부터 꽃을 피워 모내기 직전인 5월에 만개하는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 풀이다. 이 식물은 바로 요즘 서해안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매화마름이다. 매화마름은 멸종위기 2급식물로 한때 우리나라에서 멸종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던 식물이다. 매화마름이라는 이름은 잎은 봉어마름처럼 생겼는데 꽃이 마치 물매화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 사라져 버린 것으로 알려졌던 매화마름이 다시 등장한 것은



《태안군의 논에서 만난 금개구리를 닮은 참개구리와 논둑에 자라는 식물》



《태안군 이원면의 논에서 만난 매화마름 분포지의 전경(좌)과 매화마름의 모습(우)》

강화도 길상면 초지리의 논에서 이다. 1990년대 몇몇 식물을 연구하던 이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한 매화마름을 보기 위해 여러 차례 강화도를 찾았던 기억이 지금도 떠오른다. 그 뒤 적어도 일년에 한두번은 매화마름을 보기 위해 강화도를 찾고 있다. 강화도 초지리의 매화마름 군락지는 시민들이 돈을 모아 논을 사들여 보전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국내 시발지로 더 유명하다. 1895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내셔널트러스트는 자연자산이나 문화유적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활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 일대에서 대규모 매화마름군락지가 알려지면서 서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매화마름 군락지가 더 많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도 2008년 한강 하구를 조사하다 김포시의 용강리 일대의 논에서 큰 군락을 이루고 있는 매화마름 군락지를 만날 수 있었고, 자료를 찾아보니 이

곳은 2007년 유도의 철새를 관찰하던 분들이 나보다 한걸음 앞서 발견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곳은 주로 서해안과 접한 곳에서 출현하는 매화마름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강의 하구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매화마름은 겨울에도 논에서 물을 빼지 않아 논에 물이 차 있는 무논에서만 발견되는데, 이것은 매화마름의 생존조건이 일년 내내 수심이 얇은 물에 잠겨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강화도 초지리를 비롯한 매화마름이 발견되는 장소는 모두 무논이다. 태안군 원북면 동해리의 매화뚝 병마율은 매화마름의 보호에서 더 나가 매화마름 증식을 통해 매화마름의 생육지를 넓혀 마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화마름을 보전하기 위해 겨울동안 논에 물을 가두어 두니 수자원의 확보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고, 봄가뭄이 심한 요즈음 가뭄을 대비한 수자원의 저장고로서의 역할도 강화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매화마름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알려진 곳은 한강하구와 강화도 서해안의 제부도에서 태안반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해 해안의 농경지를 따라 길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관계되어 있겠지만 논에 물을 항상 채워 놓아야 하는 바닷가의 무논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곳 환경만 맞는다면 매화마름의 분포지는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농약을 사용하는 논이 줄어들고 무논이 지금보다는 더욱 많아져 보다 쉽게 논에서 매화마름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래 본다.

∴ 공생의 논에서 만난 자운영

봄이 오면 식물을 쫓아 다니는 이들도 기지개를 펴게 된다. 겨우내 움츠리고 있던 몸을 눈이 채 녹기도 전부터 피어나는 꽃들을 쫓아 바지런을 떨다보면 몸은 우두둑 소리를 내며 쉬어가며 하자고 한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바지런한 식물을 쫓아 갈 수 있을까? 사람으로 따지면 그 잠깐의 봄날동안 식물들은 유약한 뿌리를 땅 속에 뺨어 키 자람을 하고‘아니 벌써?’하는 사이에 꽃까지도 피워내니 말이다. 오늘은 남쪽지방에서 한창 꽃을 피우고 있을 자운영을 보기 위해 길을 떠난다. 중국을 고향으로

하는 자운영은 농사를 짓기 전의 논이나 밭에서 자라고 붉은보라색의 꽃을 피우는 두해살이 풀이다. 자운영은 꽃이 붉은 색을 띠고 있다고 해 홍화채(紅花菜)라고 부르기도 하며, 쇠미제(碎米濟)·야화생·연화초(蓮花草)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내가 자운영을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몇 년전 경상남도 고성(高城)의 당항포(堂項浦) 가는 길에서이다. 고성의 당항포를 가기 위해서는 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마암면을 거쳐 회화면 당항리까지 가면 되는데, 당항포까지 가는 버스는 아침과 오후로 한 대씩 밖에 없어서 시간을 잘 맞추어야 했다. 어렵게 버스 시간에 맞추어 고성군에 도착해 아슬아슬하게 차를 탈 수 있었다. 차에 올라타 겨우 숨을 돌리고 있을 때 버스는 넓은 평야지대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이 눈에 가득 자주색으로 깔려있는 식물이 만들어 내는 봄날의 아름다운 경관이였다. 버스가 정류장에 잠시 멈추었을 때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그 식물이 자운영이었다. 야외에서 생물을 만나게 될 때 많은 경우 문득 그 생물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곤 하는데 자운영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말없이 문득 다가온 자운영과 만났던 그날의 봄빛과 꽃의 아름다움은 지금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 뒤로 지리산이 가까운 평사리의 논에서, 나비축제로 유명한 함평군에서 봄바람에 흔들리는 자운영꽃무리를 만났고 그때마다 봄꽃인 자운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오늘 자운영을 찾아가는 곳은 담양이다. 하동이나 고성처럼 남쪽은 아니지만 광주와 이웃해 있는 담양도 자운영을 만날 수 있는 곳 중 한 곳이다. 서울에서 출발해 담양 습지를 돌아보고 소쇄원 가는 중간에 있는 논을 찾아갈 무렵에는 해가 벌써 서쪽으로 가 있는 시간이었다. 담양의 논에는 자운영보다는 보리를 심은 곳이 더 많았다. 아무래도 2모작을 통해 수익을 더 늘리려 하는 욕구를 쉽게 포기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보리의 경우 쉬지 않고 논이 흠속에 포함된 유기질과 무기질을 소비해 버리기 때문에 비료를 쓰지 않는 친환경 농업의 논에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리의 경작을 포기하고 그곳에 자운영을 심어 자라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다. 자운영은 콩과식물로 뿌리에 뿌리혹박테리아가 공생하고 있다. 뿌리혹박테리아는 콩과식물의 뿌리



《담양의 논에서 무리를 이루고 있는 자운영의 모습. 멀리 도로변으로 담양의 명물 중 하나인 메타쉐콰이어 가로수가 보인다.》

와 공생하며 비료성분인 질소를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토양을 기름지게 해 준다. 이처럼 균과 공생하는 식물들을 녹비식물들이라고 하는데, 요즘 많이 사용되는 녹비식물로는 자운영을 비롯해 헤어리베치, 호밀, 들묵새 등을 들 수 있다. 자운영이 자라기 힘든 중부이북지방에서는 논둑에 콩을 심어 자라게 하는데 논둑에서 자라는 콩들이 어느 정도 벼의 생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녹비식물들이 논에서 하는 역할은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으며, 토양의 비옥도를 개선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논물을 절약할 수 있고 토양생태계를 개선해 보다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장소로 논을 바꿀 수 있다. 담양의 논에는 비닐하우스가 많았는데, 비닐하우스 안에는 끝물인 딸기가 남아 있었다. 딸기가 끝난 후에는 다른 작물을 심는다고 한다. 바깥에서 보기에선 분명 논이지만 논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지는 꽤 된 것 같다. 자운영이 가득한 논에는 오늘 하루를 넘긴 해가 낮게 걸려 얼마 남지 않은 저녁시간을 아쉬워하고 있는데, 저녁 햇빛이 비추이는 자운영은 길게 목을 뽑은 꽃대가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고 있다.

자운영 옆에는 보라색꽃을 피운 헤어리베치가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같은 녹비식물인 자운영과 헤어리베치를 굳이 분리해서 심지 않았다. 서로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만큼 한 데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함께 심는 것이 논외의 지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산시의 다라미 자운영마을은 자운영을 논에 심어 수확한 청정쌀과 자운영꽃에서 딴 꿀을 관광상품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운영 꽃을 이용한 압화 손수건과 비누만들기, 핸드폰 고리 만들기, 염색, 꽃씨심기, 나물, 자운영 분양 등을 체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마을을 찾은 이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이제 논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라미의 자운영마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운영과 헤어리베치가 심어져 있지 않은 논에는 독새풀이 가득 자라고 있다. 독새풀은 논 습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자신의 생활사에 아주 적절히 잘 이용하는 식물이다. 지금이야 보리나 밀이 도심의 하천변에 많이 식재되어 있고 조경용으로 화단에도 심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리나 밀을 어렵지 않게 알아 보지만 예전에는 생물학과 학생들과 봄에 야외실습을 위해 근교로 나가게 되면 독새풀을 보고 논에 보리가 자란다고 하던 친구들이 꽤 많았다. 독새풀은 물이 차 있는 논에서 자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식물이다. 습한 땅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가긴 하지만 대부분 약간 습하거나 어느 정도 건조한 논둑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식물이다. 그런데 논은 물을 채우는 곳이니 독새풀이 물에 잠긴 논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독새풀은 논에 물을 채우는 모내기 직전까지 자신의 생활사를 마무리 한다. 다른 식물들이 싹을 틔우기도 전인 이른 봄에 일제히 싹을 내고 자라서 모내기 전에 꽃을 피우고 종자까지 맺는다. 모를 내기 위해 농사꾼이 땅을 갈아엎으면 땅속으로 들어가 여름을 나고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독새풀을 보면서 세상을 사는 방법도 참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수없이 많은 종들 중에서 자기가 속한 종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은 그 시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한 시기를 어떻게 택해 얼마만큼 치열하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발치에 닿는 작은 풀뿌리에 지나지 않지만 자운영과 독새풀의 생활사에서 삶의 소중한 지혜 하나를 배우게 된다.



《담양의 논에서 만난 헤어리베치
녹비식물로 자운영과 함께
남부지방에서 많이 심고 있다.》



《양평에서 만난 논이 개구리밥. 아직
시기가 일러 크기가 작고 논을 가득
메우지도 않은 모습이다.》

∴ 양수리의 논에서 만난 개구리밥

1970년대 감성적인 언어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밤을 세우게 만들었던 한 수산의 대표작 중에 부초(浮草)가 있다. 관객을 쫓아 전국을 유랑하는 곡예단의 이야기로 일월곡예단은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면 공연무대를 북쪽지방으로 옮겼다가 추위가 오는 가을이면 무대를 지리산 남쪽으로 옮겨 간다. 곡예단 단원인 하명을 주인공으로 해 단원간의 사랑과 아픔, 곡예단 단장의 쓰러짐과 후임단장의 부정과 그로 인한 단원간의 갈등과 헤어짐 속에서 곡예단의 천막마저 불타버리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지만 하명과 그의 동료들은 잣더미 속에서도 곡예단을 재건하기 위해 다시 서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다.

논에서도 부초 같은 식물이 있다. 아니‘부초 같은’이라는 말보다는 떠다니는 식물이라는 부초라는 뜻이 그대로 적용되는 식물이다. 벼가 자라는 계절이면 언제고 찾아가 논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이고,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이 식물은 ‘개구리밥’이다. 그 크기가 너무 작아 개구리들이 밥으로 먹을 것 같아 붙여진 이름인 개구리밥은 부초처럼 떠다니한다고 해서 부평초라고도 부른다. 머구리밥이라고도 하는데, 머구리는 함경도 사람들이 부르는 개구리의 사투리이다. 조선의 숙종 임금 3년인 1677년에 중국어 학습서인‘박통사’를 한글로 풀이한‘박통사언해’에는“이 집이 미나리 밭티 갖가오니 머구리 울어 짓켄다”라는 구절이 있어 옛날에는 개구리를 머구리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개구리밥 평(萍)자를 써 수평, 자평이라고도 부른다. 어디서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개구리밥을 보기 위해 경기도 양평의 용문지역으로 아침 일찍 출발한다. 개구리밥 자체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식물이다보니 특별히 개구리밥만을 보기 위해 하루를 할애할 필요는 없다. 검사검사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일을 보며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 오늘은 용문산의 은행나무를 보고 돌아 나오는 길에 나물을 반찬으로 하는 집에서 점심을 먹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와 함께 논을 들르기로 했다. 화창한 날씨는 먼지도 끼지 않은 파란 하늘을 걸어 놓았고 천년을 살아온 늙은 느티나무는 늙은 티라고는 하나도 내지 않고 강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용문사로 올라가는 길 주변으로 녹음이 우거진 참나무숲은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고 계곡물을 끌어와 절로 가는 길가에 물을 흐르게 해 놓았는데, 길을 걷는 내내 물소리가 귀를 떠나지 않았다. 즐거운 여행길에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개구리밥은 그래서 더 재미가 있다. 용문사를 돌아보고 나오는 길에 논가에 멈추어 아이와 함께 개구리밥을 관찰했다. 모가 자라고 있는 논에는 제법 많은 개구리밥들이 자라고 있었다. 개구리밥은 외떡잎식물이다. 여름철에 작은 하얀색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 식물을 공부하는 나도 본 기억이 없다. 꽃이야 당연히 피는 것이지만 워낙 작고 개구리밥이 흔하게 있다 보니 꽃을 보겠다고 생각한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 포가 변한 주머니에 열매까지 생긴다고 하니 올해는 걱정하고 개구리밥의 꽃도 보고, 열매도 관찰해야겠다. 개구리밥은 가을

에 겨울눈이 생기면 이것이 가라앉아 겨울을 나고 봄철에 눈에 물을 대면 다시 번식을 시작한다. 개구리밥을 오줌의 양이 적어져서 잘 나오지 않는 소변 불리나 가려움증, 두드러기 등 여러 증상에 약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천대 받고 있는 개구리밥이 앞으로 신약의 소재가 되어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지도 모를 일이다. 식물체를 기르는데도 별로 어려움이 없고 증식시키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좋은 소식을 기다려 봐야겠다. 개구리밥은 대부분 좀개구리밥과 함께 자란다. 좀개구리밥은 개구리밥보다 입의 크기가 작아 쉽게 구별되지만 좀더 확실히 구별하고 싶다면 잎을 들어 뒤에 붙어 있는 뿌리의 개수를 세어보면 된다. 좀개구리밥은 잎뒷면에 1개의 뿌리가 붙어 있어 5개 이상인 개구리밥과는 쉽게 구별된다. 개구리밥과는 아니지만 남부지방의 논에서 볼 수 있는 부유식물이 있는데, 생이가래과에 속하는 식물로 상록성의 여러해살이 풀인 물개구리밥이다. 물개구리밥은 원줄기가 깃털처럼 갈라지며 삼각형 모양으로 되는데, 남부지방의 물개구리밥 분포지를 가 보면 수면을 가득 메운 물개구리밥의 위세가 대단함을 느끼게 된다. 물개구리밥보다 크기는 약간 크지만 뿌리에 뿌리털이 달리지 않은 것을 큰물개구리밥이라고 한다. 큰물개구리밥의 구분방법 역시 개구리밥과 좀개구리밥을 구분할 때처럼 식물체를 들고 뿌리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빠른 구분 방법이다. 최근에는 남부지방에서만 분포하던 물개구리밥이 경기도 양수리 일대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조경과 전사용으로 자라풀을 남부지방에서 가져와 이용하는 과정에서 따라온 물개구리밥이 야외의 생태계로 유입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논에서 자라는 개구리밥은 벼가 어린모의 상태일 때는 그 수가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면서 논을 가득 메우고 벼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부터는 개체수의 증가보다는 크기의 증가와 가을까지의 생존에 치중하게 된다. 작은 식물 하나도 주변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또 같은 종 내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을 보면 세상을 사는 것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개구리밥이 자라고 있는 논을 떠나며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나의 생활을 다시 한번 다잡아 본다.

∴ 참고자료

이범선. 2002. 한국현대 단편소설의 이해와 감상(Ⅱ)-채만식(논 이야기).
새물결사.

한수산. 2005. 부초. 민음사.

네이버국어사전. 머구리. <http://www.naver.com>